

# 황금기 맞은 카리브문학

## 구미 문단으로 활발히 진출

제3세계의 문학에서 우리와 가장 생소한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카리브문학권이다. 북미문학의 막강한 영향력과 그에 못지 않은 중남미문학의 활발한 활동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작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카리브문학이 국내외적으로 황금기를 맞으면서 그 독특한 문학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낙원과도 같은 해안을 지닌 섬나라, 일년내내 내리쬐는 태양으로 연상되는 카리브해의 국가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미열강에 의해 점령된 식민지로서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독립 이후에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함께 흑백인종간의 갈등, 경제적인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들의 토속적인 정서와 역사적인 경험이 어우러져 뛰어난 문학작품을 배출해내고 있다고 서구의 평론가들은 평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카리브지역의 작가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데는, 식민지 통치국이었던 프랑스·영국 등지의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 작가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최근 들어 영국에서는 카리브출신 작가들이 하나의 문학권을 이룰 정도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들이 영국문학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50년대부터인데, 바베이도스 출신의 조지 래밍, 자마이카의 앤드류 솔키, 기아나의 에드가 미렐로치, 트리니다드의 V.S.나이폴 등이 그 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조지 래밍이 런던에 도착하여 발표했던 소설 「내 피부의 城 속에서」(In the Castle of My Skin)는 카리브해의 끈질기고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그의 문학적 가능성을 예감케 해준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사르트르와 보보와르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카리브의 일반독자들과 평론가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강의 굴곡」(A Bend in the River), 「게릴라들」(Guerrillas)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나이폴 역시 50년대 당시에는 평단으로부터 외면 당해, 5년 동안 고작 525달러 정도의 수입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곤궁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카리브 작가들 대부분이 중산층 출신으로 카리브의 정서와 삶을 감성적인 필체로 그려냈음에 비해, 6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노동계층 출신이 많이 등장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작품도 서구사회 속에서의 소외된 삶을 그리는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각 출판사들로부터 그들의 작품 출간이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1966년 존 라로즈와 사라 화이트 부부가 '뉴 비콘' 서점과 출판사를 설립해 카리브 출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속속 출간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뉴 비콘'출판사에 이어 설립된 '보글-루베르튀르' '카냐 하우스' '카리아 프레스' 등이 영국에서 카리브문학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들인데 뉴 비콘 출판사는 이제 영국내의 여느 대규모 출판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실력 있는 출판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들은 1981년부터 '급진적 흑인 및 제3세계 도서전' (Book Fair of Radical Black & Third World Books)을 공동주최하고 있는데, 해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카리브지역의 150여 출판사가 참가하여 제3세계

문학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가장 활발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출판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이제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리브출신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작가들도 유럽무대에 속속 소개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1986년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I'm Becoming My Mother)로 영연방詩賞을 수상했던 자마이카의 여류작가 로나 구디슨, 역시 자마이카 출신으로 「제인과 루이자가 곧 집으로 돌아 온다」(Jane and Louisa Will Soon Come Home)라는 소설을 통해 식민지 흑인 여성의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그려낸 에르나 로드버, 「유럽의 아프리카 후진화」(How Europe Underdeveloped Africa)를 발표한 기아나의 윌터 로드니, 지난해 기아나詩賞을 수상했던 작품 「기아나, 나의 제단」(Guyana, My Altar)의 마크 매튜 등이 높은 문학적 재능으로 평론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같은 활기에도 불구하고 카리브의 문학이 세계문단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영국을 비롯한 소수의 구미 출판사들만으로는 이 지역의 문학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역부족일 뿐 아니라 아직도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마야 안젤루, 토니 모리슨, 엘리스 워커 등 일련의 미국 흑인작가들의 작품들이 유럽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카리브출신 작가들의 작품들이 더욱 활발히 소개될 것이 틀림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카리브 작가 자신들 속에서 발견된다. 거대한 미대륙 사이에 놓인 지리적 조건과 서구식 문명에

깊숙히 젖어 있는 상황에서, 카리브 특유의 진한 정서, 즉 그들의 문화적 연속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카리브문학의 앞날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에이즈시대의 '에이즈문학'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AIDS)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계에 번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에 관한 과학적 연구보고서는 해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에이즈에 감염된 작가들이 그들의 자신의 질병을 소재로 삼아 속속 내놓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실험보고서나 통계가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과 좌절, 희망과 분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시사주간지인 「타임」지 최근호가 에이즈를 소재로 한 작품들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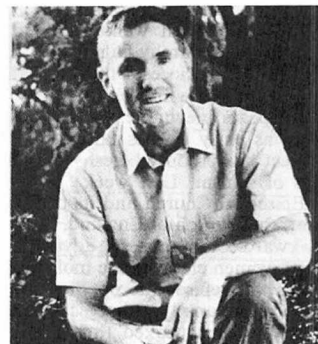
폴 모네트

들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고, 그 밖의 신문·잡지들도 이에 대한 문학적 조명을 서두르며 '에이즈문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에이즈를 다룬 작품들이 가장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 이들 작품들은 병상수기 및 회고록 등 비소설류와 소설·희곡 등 순수문학작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올 하반기 미국 서점가에는 세권의 수기작품이 거의 동시에 선을 보였다.

시인이며 소설가, 영화대본작가

로 활동하고 있는 폴 모네트가 발표한 「빌린 시간」(Borrowed Time)은, 지난 86년 에이즈로 사망했던 연인 로저 호위츠의 병상을 지키며 겪은 자신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적은 눈물의 기록이다. 그는 이 책에서 두 사람의 투철한 직업의식, 사교생활, 사랑과 우정, 용기, 주변사람들의 냉대와 무지 등을 충격적일 만큼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작품들을 읽으며 '거짓없고 명예롭게 죽음에 직면'해나가는 모습은 자못 감동적이기까지 하며, 호위츠



앤드류 홀러란

가 병원에서 신음하는 순간에도 입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시한 코메디원고에 매달려야만 했던 모네트의 처지가 마치 블랙코메디의 한 장면처럼 시니컬하게 묘사되고 있다.

앤드류 홀러란의 수기 「제로 지점」(Ground Zero) 역시 자신의 뛰어난 필력과 지성을 바탕으로 하여, 에이즈를 탄생시킨 20세기 말기의 현대문명과 죽음을 앞둔 인간군상을 명료하게 그리고 있다. 「댄스 출신의 댄서」라는 소설로 호평을 받은 바 있었던 그는, 이 책에서 에이즈의 만연이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감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 자신이 에이즈환자로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라. 건강이야말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 한 순간의 헛된 쾌락이나 고독을 잊기 위해 건강을 내던지지 말라"고 독자들을 향해 피땀 흘린 절규를 토로한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번역작가 다니엘 드뤼이유의 「죽음의 포옹」(Mortal Embrace)은 에이즈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병상수기이다. 그는 에이즈와 인간의 싸움을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의해 촉발됐

던 트로이전쟁과 비교하는가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나찌로, 에이즈 환자는 무지와 편견의 희생양이었던 유대인 포로들로 보고 있다. 앞의 두 책이 다분히 감상적인 면에 치우쳐 독자들의 누선을 자극하는데 비해 트로이전쟁의 책은 논리적인 분석과 서술이 돋보이는데, 그는 에이즈의 만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특히 2차대전 당시 조국 프랑스에 밀어닥친 위기를 무시하려고 했던 페탱총수와 같은 인물이 바로 레이건대통령이라고 지적한다.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레이건의 관심이나 대응조치는 “거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당히 싸워나가기”보다는 개별 조직체를 통해 “지원 물자를 조금씩 흘려 들여보내고 있는 콘트라지원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죽음의 포옹」은 비록 작은 책자이지만, 에이즈환자들이 느끼는 깊은 좌절과 슬픔, 무기력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고 백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수문학분야에서도 에이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차츰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대공연을 위해 희곡형태로 발표된 작품들로

는 래리 클레이머의 「정상적인 심장」(The Normal Heart)과 윌리엄 호프만의 「그대로」(As Is) 등이 있고, 소설 중에서는 앨리스 호프만의 「위험상태에서」(At Risk) 등이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꼽힌다.

앨리스 호프만의 소설은, 맹장염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12살짜리 소녀체조선수 아만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팀동료는 물론 동네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한 소녀와 그 가족의 기막힌 사연을 대단히 세련되게 그리고 있어, 20세기 폭스가 영화제작권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사실 서구문학사에는 사포에서부터 오스카 와일드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동성연애 작가들의 모습이 있다. 따라서 에이즈라는 대역병시대에 이 부류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의 평론가들은, 이들 작가들이 동성연애자이며 에이즈라는 충격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작품을 편견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존 레넌 傳記 신비의 베일 벗겨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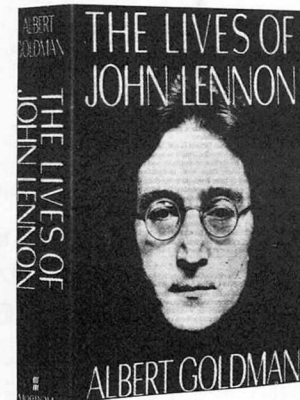
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으며 한 시대의 희망을 상징했던 비틀즈의 전 멤버, 존 레넌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 작가 최근 미국에서 발간돼 연일 신문지상에 화제로 오르고 있다.

팜문화비평가이며 전직 컬럼비아대 영문학교수인 앨버트 골드만이 6년에 걸친 자료수집 끝에 완성해낸 「존 레넌의 삶들」(The Lives of John Lennon)은, 베일에 싸인 레넌의 참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다가 나름대로 소설적인 재미까지 갖추고 있어 조만간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전기에서 발표된 내용 중, 가장 독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레넌과 그의 부인 오노 요코와의 관계.

레넌이 5년간의 공백 끝에 그의 최후의 앨범이 된 「더블 환타지」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팬들은 두 사

람의 다정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레넌 역시 지난 5년 동안 집에서 빵을 만들고 아들 손을 돌보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기쁨을 향유했다고 말했으나, 골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레넌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마약과 술에 취해 있었고, 오노 요코 역시 샘 그린이란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더블 환타지」의 제작에 오노 요코가 적극



참여했던 것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남편 레넌을 돕고자 했던 아내로서의 따뜻한 내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연인 샘 그린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오노 요코는 당시 “레넌의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앨범제작이 끝나는 즉시 이혼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 골드만은 레넌의 참모습을 추적하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하고 “레넌과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그 모두가 레넌이란 한 인물의 여러 모습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었다”고 말하며 레넌이 얼마나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였는가를 지적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오노 요코가 그와의 면담을 계속 거부했었던 점이었다고.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료의 나열에도 불구하고, 레넌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읽은 독자들 과 평론가들의 솔직한 평가이다.

레넌은 무엇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재능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서 저 멍청이가 더 큰 성공을 거뒀는지 모르겠다”고 오만하게 말했던 오노 요코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것처럼 의존적이었을까? 또한, 무엇 때문에 레넌은 팜 뮤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룹 비틀즈를 해산시키고 말았을까? 등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끈기있게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오애리 기자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88년 9월 11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b>THE CARDINAL OF THE KREMLIN</b> 톰 클랜시 (퍼트남) 소련에 붙잡혀 있는 미국정보원을 구출해내기 위한 CIA요원 책라이언의 활약	<b>A BRIEF HISTORY OF TIME</b> 스티븐 W. 호킹 (번트)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b>FALLEN HEARTS</b> V. C. 앤드류스 (포켓) 스캔들과 과거에 시달리는 한 오지의 여성	<b>SPYCATCHER</b> 피터 라이트/폴 그린그래스 전 영국비밀첩보원의 자서전
2	<b>TILL WE MEET AGAIN</b> 주디스 크란츠 (크라운) 파리와 LA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여성과 그녀의 두 딸 이야기	<b>THE LIVES OF JOHN LENNON</b> 앨버트 골드만 (모로우) 전설적인 록큰롤 스타 레넌의 사생활을 밝힌 전기	<b>PATRIOT GAMES</b> 톰 클랜시 (버클리)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CIA요원 책라이언	<b>THE POWER OF MYTH</b> 조세프 캠벨/빌 모이어스 (더블데이) 인간의 삶과 신화의 관계
3	<b>ALASKA</b> 제임스 A. 미처너 (랜덤 하우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의 역사를 소설화	<b>THE DUCHESS OF WINSOR</b> 찰스 히렐 (맥그로 힐) 에드워드 8세와 결혼한 심프슨부인의 생애	<b>HOT FLASHES</b> 바바라 래스킨 (세인트 마틴스) 친구의 장례식에 모인 세 여성이 그들의 젊은 시절인 60년대를 회상한다.	<b>LOVE, MEDICNE &amp; MIRACLES</b> 버니 시겔 (페레니얼/하퍼 & 로우)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
4	<b>THE BONFIRE OF THE VANITIES</b> 톰 울프 (파라, 스트라우스 & 지루) 도시의 정글에서 근경에 빠진 증권거래인	<b>THE RAGMAN'S SON</b> 커크 더글라스 (사이몬 슈스터) 이민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영화배우로 대성 한 커크 더글라스의 자서전	<b>SPHERE</b> 마이클 크리치 (벨런타인) 4명의 과학자들이 외계우주선을 조사한다.	<b>SMALL SACRIFICES</b> 앤 룰 (시네트) 오래된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	<b>DOCTORS</b> 에릭 시겔 (번트) 허버드 의대출신 5명의 삶을 그린 소설	<b>TRUMP D. J.</b> 트럼프/토니 슈바르츠 (랜덤 하우스) 미국 재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가 밝힌 자신의 사업스타일	<b>PRESUMED INNOCENT</b> 스코트 터로우 (워너) 대도시에서 발생한 잔인한 살인사건이 정치인과 법률인들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b>IT'S ALL IN THE PLAYNG</b> 셸리 맥클레인 (번트) TV 시리즈 "Out on a Limb" 뒷 얘기
6	<b>SPOCK'S WORLD</b> 다이안 두에인 (포켓) 호성 별 칸과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의 선장 스포크의 비밀, 「스타트랙」 시리즈	<b>THE BOZ</b> 브라이언 보즈워드/릭 라일리 (더블데이) 시애틀 폭스 축구팀 선수 보즈워드가 밝힌 자신의 생과 스포츠관	<b>TEAM YANKEE</b> 해롤드 코일 (버클리) 3차 세계 대전 동안 유럽에 있는 미국의 탱크회사의 공훈	<b>THE ROADLESS TRAVELED</b> M. S. 펙 (터치스톤/S & 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7	<b>DEMON LORD OF KARANDA</b> 데이비드 에딩스 (텔 레이/벨런타인) 대륙을 지배하려는 싸움을 그린 환상적 모험담	<b>GENERATION OF SWINE</b> 헌터 S. 톰슨 (서미르) 時評	<b>SARUM</b> 에드워드 러더퍼드 (아이비) 다섯 가문을 통해 그린 영국의 만년사	<b>VEIL</b> 톰 우드워드 (포켓) 1981년부터 87년까지 CIA 최고 책임자였던 윌리엄 케이시의 활동
8	<b>TO BE THE BEST</b> 바바라 테일러 브래프트 (더블데이) 백화점 재벌 가문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재정적 고난	<b>TALKING STRAIGHT</b> 리 아이아코카/소니 클라인필드 (번트) 클라이슬러회장이 말하는 자신의 경험과 주장	<b>WEEP NO MORE, MY LADY</b> 메리 허긴스 클라크 (텔) 호사스런 캘리포니아 온천장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살인사건	<b>MAN OF THE HOUSE</b> 팀 오닐/윌리엄 노박 (세인트 마틴스) 미 하원의장이었던 오닐의 자서전
9	<b>LIBRA</b> 돈 드릴로 (바이킹) 케네디대통령의 암살과 CIA 음모설을 소재로 한 소설	<b>SENATORIAL PRIVILEGE</b> 레오 다모어 (레그너리 케이트웨이) 1969년 차과퀴팅 사건을 파헤친 현직기자의 보고서	<b>NEW MEXICO!</b> 테이나 풀러 로스 (번트) "Wagons West" 시리즈	<b>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b> 앨런 블룸 (터치스톤/S & S) 미국 인문 교육 비평론
10	<b>LOVE IN TIME OF CHOLERA</b> 가브리엘 가르사 마르케스 (크노포트) 평생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 하는 콜롬비아 시인의 애절한 이야기	<b>THRIVING ON CHAOS</b> 톰 피터스 (크노포트) 현재와 미래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b>TRIUMPH OF THE DARKSWORD</b> 마가렛 바이스/트레이시 혁맨 (스펙트라/번트) 환상적인 모험담의 최종권	<b>THE MERO WITH A THOUSAND FACES</b> 조세프 캠벨 (프린스턴대학) 수세기에 걸친 신화를 통해 살인, 동질성을 찾기 위한 인간의 투쟁